

“삼겹살 지켜주세요... 소비심리 회복돼야”

한돈자조금, 국산 돼지고기 소비 호소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무해
집돼지 보다 멧돼지 방역을”



3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돈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돼지 흑사병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해주세요.” “정부는 집돼지보다 멧돼지에 모든 방역 정책을 쏟아야 합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돈농가 응원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돈 소비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돈 농가들은 ASF 발병 후 돼지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돈소비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6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염성

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ASF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한돈 농가는 돼지 1마리 당 약 15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산하는 농가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1~30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탕박·등외제외)은 kg당 315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9.3%, 평년보다 20.5%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경기도 연천을 마지막으로 양돈농가에서는 ASF이 발견되지 않은 지 3주가 지났음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돈 농가들이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10월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보다 돼

지고기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이 45.4%(239명)로 나타났다. 반면 늘렸다는 응답은 4.9%(26명)에 불과해 2019년 10월 돼지고기 소비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이유로는 ‘돼지고기 안전성이 의심되어’가 70.3%에 달했다.

한우자조금은 11월 1일까지 한돈 직거래장터를 열어 삼겹살, 목심 등 인기 부위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 대상 한돈 안전, 안심 홍보캠페인도 함께 연다. 또한 11월 3일까지는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 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에 참여해 한돈 무료 시식회, 경품 이벤트를 통한 한돈 안전성 알리기에 나선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방역 조치로 발령된 권역별 이동제한의 해제 등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위원장은 “SOP(긴급행동지침)에 벗어나는 방역 및 살처분, 수매는 하지 말라는 것이 농가의 뜻”이라며 “정부는 집돼지보다는 멧돼지에 모든 방역 정책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2019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유럽 공략 4회 런던 아시아영화제서 ‘진로소주 시음행사’ 진행

하이트진로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소주 알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런던, 독일 쾰른 등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 4회 런던아시아영화제(LEAFF)’에서 한국 소주 알리기에 나섰다 3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런던아시아영화제와 처음으로 주류 파트너십을 맺고 영화제 오픈링 작품 상영 전 리셉션 자리에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로(JINRO) 소주 시음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유럽 영화제에서는 와인, 샴페인사와 협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시아영화제인만큼 아시아 대표 소주인 진로 소주가 오픈링 자리를 빛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인용 기자



“땅 파서 장사”... 홈플러스, 대대적 할인행사

홈플러스, 업선 200종 대표상품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 선봬

빅딜가격·득템찬스1+1 등 프로모션
삼성·LG전자 등 가전 할인대전도



홈플러스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 /홈플러스

“4주간 땅 파서 장사하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연말을 맞아 11월 27일까지 4주간 전국 점포 및 온라인몰에서 대규모 ‘블랙버스터’ 할인행사를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업규제와 경기침체, 온라인쇼핑 성장 등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환경 속에서 유통업체들은 뼈를 깎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대적인 초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블랙버스터’ 행사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연중 최대 규모 소비가 시작되는 11월에 맞춰 신선식품부터 가

사 업선한 200여 종의 대표상품을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 상품으로 선보이는 한편, 매주 인기상품을 대규모 사전 물량계약으로 초특가에 파는 ‘빅딜가격’, 300여 종 핵심 생필품을 반값 수준에 내놓는 ‘득템찬스1+1’, 코리아세일 페스타 ‘가전 할인대전’, 쇼핑몰과 온라인몰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우선, 품질과 가격 모든 측면에서 업선한 상품 200여 종을 ‘블랙버스터 스페셜 패키지’로 제작해 4주 내내 저렴하게 선보인다. 매장 곳곳에서 ‘블랙버스터’ 아이콘이 붙은 상품을 찾으면 된다.

고당도 레드키위(9~18입/팩) 7990원, 애호박(2입) 1790원, 핫 찰현미(7kg) 1만9900원, 자반고등어(4마리) 5990원, 에콰도르 힌다리새우(30마리 내외) 9990원, 해태 고향만두(1kg)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리온-中 루이싱커피 고소미 등 제품 수출계약

오리온은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커피’와 프리미엄 미네랄 워터 ‘오리온제주용암수(사진)’와 ‘고소미’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오리온제주용암수는 제품 출시 전부터 제품력을 글로벌 기업에 인정 받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오리온은 연내 오리온제주용암수를 국내에 출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루이싱 커피에 530ml 제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11번가, 매출 1405억 영업익 3억 달성

3분기째 영업손익 개선



11번가 주식회사가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영업이익 3분기 연속 달성에 성공했다.

31일 SK텔레콤의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11번가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405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으로 2019년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비효율적인 직매입 사업축소로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수익성 중심 경영 원칙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익을 194억원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 3분기 영업손익 -191억원 추정)

11번가는 업계 유일의 ‘커머스 포털’을 지향하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쿠폰 중심의 가격 경쟁을 벗어나 고객에게 실리를 제공하는 SK페이포인트 혜택 강화에 나서는 등 재미, 정보, 참여로 고객의 쇼핑만족도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올해 ‘월간 십일절’의 성공과 타임딜의 인기, 11번가 단독상품 완판 사례 등 비용 대비 효율적인 판매 성과를 이뤘다.

/신원선 기자

“마음속 쇼핑리스트 내일 득템 기회”

신세계, 내일 ‘대한민국 쇼핑 축제’

‘한우 1등급 등심 4750원(100g·KB국민카드 결제 기준)’ ‘알찬란 1구 86원’ ‘80cm TV 9만9000원’ 11월 2일 썬데이를 맞아 이마트가 준비한 초특가 쇼핑리스트이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11월 2일 단 하루 18개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유통역량과 인프라를 총 동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쇼핑 축제를 펼친다.

앞서 지난 28일부터 사전행사를 시작한 ‘썬닷컴’의 행사 물량 규모는 총 5000억원어치에 달한다.

최대규모로 행사를 준비한 계열사는 이마트이다. 이마트는 ‘썬데이’를 맞아 단 하루 ‘1+1’ 행사와 각 품목별 주요 상품 최대 50% 할인 등을 펼친다. 썬데이 당일 물량 규모로만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전문점들을 모두 합쳐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초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 행사는 테마별 가격 혜택이 가득하다. 한우·G7 와인·계란·피자 등 가격이 행사상품을 비롯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전품목 최대 50% 할인, 신선상품 2개를 1개 값에 구매하는 ‘2개 구매시 1개 할인’, 점별 ‘오늘 단 하루 서프라이즈 특가’ 등이 주요 테마다.

/신원선 기자

유통단신

농심 ‘수미칩’

마라소스·체다치즈 2종

농심이 수미칩 마라소스와 체다치즈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수미칩 신제품은 양념과 오일을 버무린 액상소스를 점점이 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 풍미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새로운 수미칩의 맛으로 ‘마라’와 ‘체다치즈’를 선택했다. 최근 다양해진 시장의 수요와 해외 식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소비 트렌드에 따른 것이다.

/박인용 기자

